

광주일보 문예 매거진 4월호

최성환 목포대 사학과 교수 '목포' 펴내

# “목포가 쌓아온 시간과 문화 공감하고 싶어”



최성환 교수

공간적 범위 크지 않지만 이야기 소재 곳곳에 산재

목포 변화 실감 수탈의 도시에서 문화관광 도시로 근대예술 꽃피워

“목포가 다른 항구도시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뿌리가 수군기지에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정유재판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 장군은 고하도에서 재건을 했죠.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이 해안을 중심으로 도시를 개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목포 진(陣)을 중심으로 깃발을 막아서 만든 도시입니다.”

목포는 근대 문화유산과 함께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서남권 중심도시다. 목포를 지칭하는 말들은 많다. 낭만 항구, 맛의 도시, 전남 근대문화 1번지 등은 목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목포의 땅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낸 책이 발간됐다. 특히 목포에서 나와 자라고 공부한 토박이 역사학자가 펴낸 인문서적이라 기존의 책과는 결이 다르다.

최성환 목포대 사학과 교수가 펴낸 '목포' (21세기북스)는 목포가 쌓아온 시간과 문화를 이야기한다. '대한민국 도슨트' 기획 시리즈로 발간됐으며 '책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진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저자는 목포는 "한국사에서 단 한 번도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도시"라고 정의했다. 지금의 빠른 변화를 알리고 목포를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는 차원에서 인문 안내서를 펴냈다는 것이다.

"지역사를 전공한 뒤 주말이면 현장답사를 많이 다녀왔어요. 그때마다 목포의 공간적 범위는 그리 넓지 않지만 이야기 소재는 매우 많다는 사실을 느끼곤 했죠."

책 집필 동기부터 과정, 목포의 역사를 풀어내는 저자의 말에는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가득했다. 인터뷰 중간중간 토박이만이 알 수 있는 지명과 어휘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목포사람들이 '큰 시장'이라 불렀던 남교동 중앙공설시장에서 태어났고 오늘날 '목원동'이라 부르는 원도심에서 자랐습니다. 목포역, 차 없는 거리, 목포극장, 선창, 콩나물 동네, 유달산, 대반동 해수욕장 등 그 시절 목포의 낭만이 담겨 있는 장소에서 많은 추억을 쌓았죠."

최 교수는 최근의 목포 변화를 실감한다. 원도심이 중요하다는 분들도 많지만 더러 신도심 주민들은 '왜 원도심만 갖고 이야기하느냐'고 불만을

소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면 저자는 "목포는 이런 항구도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원도심에 있는 유적이 왜 중요하고 목포를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는지 공감대를 공유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사실 목포는 수탈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요즘은 근대도시, 문화관광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관광으로 치우치다보면 수탈의 역사는 퇴색해지고 자칫 불거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목포는 전통시대 유적과 근대의 유적이 하나도 합쳐져서 이루어진 도시다. 나라를 지켰던 전통시대의 뿌리와 나라를 빼앗겼던 당시의 유적이 공존하는 곳이다. 두 측면을 아우르면서 식민지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목포를 제대로 아는 방법이라는 얘기다.

저자는 목포 예술에 대해서도 나름의 견해를 피력했다. 수탈로 인한 한의 정서가 있지만 한편으로 예술과 문화를 즐길 줄 아는 민영의 문화도 공존한다는 논리다.

"예술적인 측면에서 광주 양림동보다 먼저 근대문화가 형성된 곳이 목포 양동입니다. 선교사들이 이곳에 먼저 정착했다가 광주로 옮겨갔지요. 항구도시의 역동성이 목포의 근대예술을 꽃피운 근인이라고 할 수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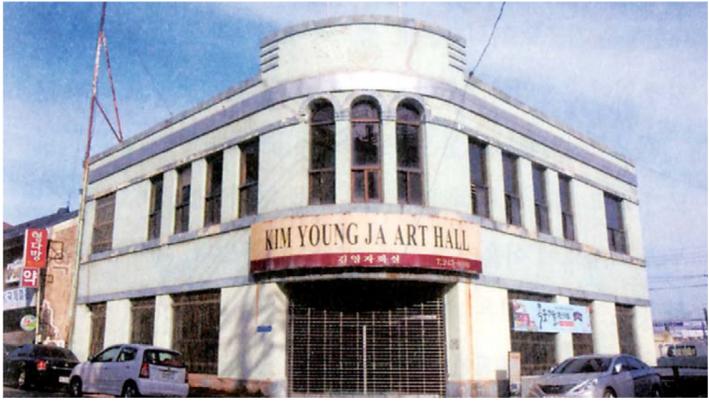
최 교수는 노동사적인 관점에서 목포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가장 치열하게 노동운동이 일어났던 도시라는 것이다. 그는 1920년대 면화 공장이 많았었고 당시에 선진적인 지식인들에 의해 노동운동이 전개됐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대학에 임용되기 전 지방의 문화예술진흥을 주도하는 문화원에서 근무했다. 목포 문화원과 신안문화원에서 12년간 현장 경험을 쌓았다. 또한 지역의 문화운동에도 참여했으며 틈틈이 목포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힘을 합해 '동양척식회사 건물과 구 동본원사 건물물 지키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그 반대 경우도 있는 "죽동교회, 동양척식회사 관사 등 유산들이 사라지는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그는 다도해 수도로서의 목포 역할도 주문했다. 섬을 품은 항구라는 여건 때문에 오늘날 목포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목포사람의 60%는 신안 출신입니다. 신안의 섬들과 촘촘하게 연계될 수 있었기에 오늘의 목포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다도해의 수도로서 제 기능을 다 했을 때 목포 또한 성장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목포 근대상점 중 가장 화려했던 건물인 '구 목포화신 연쇄점'

## 예능



### 시민공간으로 부활한 '전일빌딩 245' 생태와 인문의 도시 '죽향' 답양 여행

호남언론의 1번지이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현장인 전일빌딩이 광주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은 4월호 특집으로 '시민공간으로 부활한 전일빌딩 245'를 소개한다. 자칫 험담했던 건물은 조만간 '전일빌딩 245'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인 시민 복합문화센터로 문을 연다. '전일빌딩 245'의 층별 문화콘텐츠 소개와 함께 전일빌딩의 지난 역사,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다.

예향 초대석은 '우리 식물 지킴이' 이유미 국립수목원장과의 만남이다. 이 원장은 550년 역사의 광릉 숲에서 식물연구에 매진하는 한편 풀과 나무의 다양한 세계를 인문학적 시각에서 대중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코로나 19'가 우리들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는 이때, 그의 생명의 온기를 품은 풀과 나무 이야기는 대중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건넨다. 40년 가까이 풀과 나무와 함께하며 한 길을 걸어온 이 원장으로부터 생명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짜짜짜짜 나무 한 바퀴' 코너는 생태와 인문의 도시 답양으로 떠난다. '죽향(竹香) 답양이 언제부터가 생태와 인문을 겸비한 도시로 탈바꿈했다.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 담양호 용마루길 등 자연을 벗삼는 힐링공간과 함께 해동문화예술촌, 답양예술창고 등 문화예술 공간도 여행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명품 죽향딸기와 전통 한과는 여행의 기쁨을 더해준다. 새봄을 맞아 생동하는 답양으로 생태·문화 여행을 떠나보자.

'클릭, 문화현장'은 부안 청자박물관과 전주시립도서관 '꽃섬'으로 안내한다. 미적 감각을 키우고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공간들을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 중

에서도 미술관이나 박물관, 도서관은 대표적인 곳이다. 그래서인지 전북 부안의 청자박물관과 전주시립도서관 '꽃섬'은 늘 특별한 일상을 보내려는 시민들이 자주 찾곤 한다. 독특한 건축물과 콘텐츠 덕분에 전국구 명소로 떠오른 두 곳을 소개한다.

문화기자가 추천하는 '문향이 숨쉬는 문화관을 찾아서'는 인간과 역사의 대서사를 완성한 작가 조정래의 창작정역을 살필 수 있는 보성 별곡 태백산맥박물관으로 안내하고, '실용성 있는 문화예술인 지원으로 창작의 자생력을 키우자' 기획을 준비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어떤 요리를 올려 볼까" 어느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 가족들의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해 주부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맛 좋고 영양이 높은 음식을 찾아 고민도 깊어간다. 제철을 맞은 신선한 봄나물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 화려하고 복잡한 레시피는 없어도 된다. 달래와 냉이, 봄동으로 만드는 초간단 봄나물 요리에 도전해 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잠시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해 '워라벨 시대, 문화관광이 뜬다'는 섬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인 곳이자 독일의 모나리자로 불리는 '네퍼티티'를 만날 수 있는 독일 베를린 박물관으로 안내하고, 2012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된 후 '디자인'을 도시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는 핀란드 헬싱키의 디자인 감성을 만나본다.

이외에 고향팀에서 약속된 마지막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우승 청부사' KIA타이거즈 최형우 선수의 꿈,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거냥' 두 번째 이야기 '셋'이라 세 배 행복한' 다견가정 별 달 밭이네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준비했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코로나19 추모콘서트 '기도' 유튜브 중계

4월 3일 나주 안성현음악홀...서현일 베토벤 '비창' 등 연주

(사)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은 코로나 19로 희생된 인류를 위한 추모콘서트 '기도'를 연다. 4월 3일 오후 7시 나주 안성현음악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지난 공연에 이어 무관객으로 진행되며 나주교육지원청의 후원으로 열린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19가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을 통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바이러스를 함께 이겨내고자 기획했다.

올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베토벤의 곡으로 꾸며지는 무대에는 피아니스트 서현일

이 올라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비창', '월광', 그리고 '열정'을 연주한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서 씨는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악 대학, 석사,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고 독일 두빈슈타인 국제콩쿨 3위 입상, 한국인음악상 신인상을 수상했다.

현재 솔리스트, 앙상블 피아니스트로 활동중이며 전남대, 순천대, 목포대, 경성대, 예술영재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피아니스트 서현일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CES, BIG INNOVATION AWARDS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부산 행사대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메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t'way

KBO LEAGUE KOREAN AIR

벤틀리관광호텔